

## 01. 감상수업이란?

미술 감상은 학생들의 미적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실제 학교수업에서 감상수업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술활동은 그나마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수업으로 활동이 많아지긴 했지만 작품 감상영역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감상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교사의 설명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말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안목으로 드러나야 하는 감상교육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비평의식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관찰하는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미적경험 외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들어진 표현과 감상을 연관시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진 발문으로 아이들이 답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 미술수업에서는 교사의 질문으로 대처가 될 수 있지만 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또 다른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더해졌을 때 단순한 보기에서 감상의 많은 차원까지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교육방법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현활동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기위한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사위주의 짧은 감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적경험을 통해 깊은 지식으로의 안내와 또 다른 생활에 적용까지 미술적 사고를 확장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상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종 류	감 상 방 법
직관적 감상	• 감성적으로 대상을 접하면서 평가하고 감상한다.
분석적 감상	•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적으로 평가하며 감상한다.
수용적 감상	• 주어진 정보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며 감상한다. “이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는가?”와 같이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해 보는 방법이다.
비평적 감상	• 주어진 정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분석, 해석하여 판단한다. 즉, “이 작품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품을 감상한다.

시계, 외판섬, 손수건, 복주머니, 나무, 부채, 철사, 석류, 소라껍데기, 시간, 흙수, 시체, 말, 오징어, 지렁이, 문어, 춤추는 풍선, 사차원, 사막, 물, 하늘, 책상, 절벽, 노을, 죽은 새, 땅, 보석함, 타이머, 돛단배, 녹다, 굳다, 흙, 눈썹, 무인도, 첩관, 뽀족하다, 암벽, 죽은 섬, 색상, 메마른 사막, 고장난 시계, 산	등의
---	----

니다. 문화의 시대는 새로운 생각의 시대라는 결과도 같습니다. 융합교육에서 미혼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더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하며 감성적인 교육을 떠나 창의적인 교육의 기본교육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그린 그림정도만 아는 것으로 그친 지금까지의 교육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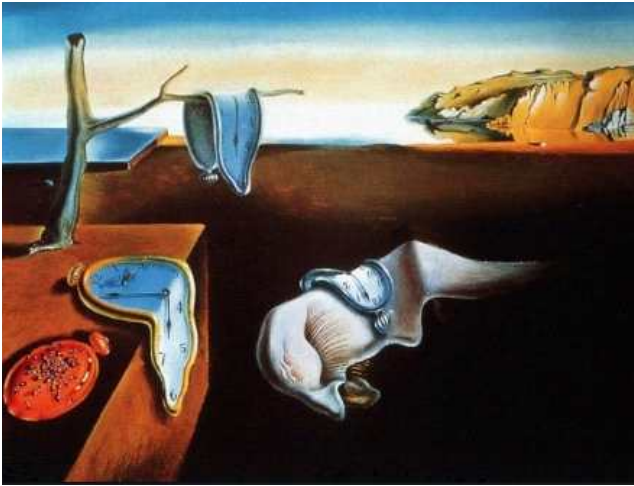
고급지식으로의 미술이 아닌 일상의 문화, 다시 말하면 미술교육은 이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중심주의적 미술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감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과학 문명의 발달은 끝없는 정신적·신체적 노동을 요구하면서 인간의 두뇌도 그에 따른 삶도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은 잠깐의 시간만 투자만으로 질적 삶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특정 계층의 독점향유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 세대는 미술 감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다가 그 많은 지식을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과 새로운 피로를 또 느끼게 됩니다. 질문하는 미술 감상법은 그러한 피로에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술은 인간의 다른 어떤 문화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안목은 단순한 보기에서 미학(심미적 감상), 미술 비평(비평적 감상), 미술사(역사적 감상)로 매우 다의적 성격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질문으로 접근하는 탐구적인 미술 감상이 이 모든 영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02. 질문으로 감상하기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가지고 감상수업을 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아이들에게 갑자기 느낌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잘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관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보이는 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1931년작)

이 정도의 단어를 찾아 낸 것만도 이미 훌륭한 감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직관 - 느낌대로

분석 - 찬찬히 살핌

수용 - 눈에 보이는 대로

단독 - 하나의 작품으로

이 네 가지 정도의 감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교사의 질문에 의한 보이는 대로 관찰하여 찾아낸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대로는 우리의 눈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섬이라든지 시간, 그리고 무인도, 메마른 사막 등 머릿속에 상상하는 대로 낱말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직관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상상력(想像力)이란 생각하는 것을 그려내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찾은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찾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아이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림을 어떤 외부적 정보없이 자신만의 눈으로 감상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동안의 미술작품 감상은 그림과 함께 정보를 바로 주는 방법이었지요. 자료를 찾아서 교사가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미술전공 선생님은 그 이면의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셨겠지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역시 선생님의 이야기로만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찾은 단어들과 또 새롭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 시계가 왜 흐물 흐물 할까?
- 책상위에 왜 나뭇가지가 붙어 있을까?
- 여기는 섬일까?

- 식탁 오른쪽은 말일까?
- 사람이 살 수 있을까?
- 물 위에 섬에는 누가 살까?
- 왜 무인도에 시계가 있을까?
- 시계가 왜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까?
-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죽었을까요?
- 하얀색 물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 이 섬에는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을까요?
- 시계가 잘 돌아 갈까요?
- 왜 홀수로 시계, 나무가 있을까?
- 이 그림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 이 배경은 미래일까, 과거일까?
- 이곳은 시간이 흐를까?
- 흰색 물체는 무엇일까요?
- 자동차가 있을까요?
- 왜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만든 질문으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책상 위에 나뭇가지가 솟아있는 이유들을 재미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은 자신의 영역인지 그 밖의 영역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재미있다는 말은 어째서 나왔을까요?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그림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모르는 그림처럼 지나가 버리지만 함께 질문을 만드는 시간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하고 그림의 배경과 화가의 생애까지 무척 궁금하게 합니다. 이것이 질문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제목을 알려주어서 감상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정답을 맞추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가기보다는 제목에 맞춘 질문과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인도, 지옥섬, 꿈 속 세상, 이상한 나라의 시계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라는 멋진 제목까지 생각해 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 느낌을 말해보자고 했더니 '지루하다, 잠이 올 것 같다, 꿈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훌륭한 감상이 아닌가요? 그 다음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을 교사의 설명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밀레이<1856년작>

두 번째 '눈먼 소녀'를 보고 아이들이 만든 질문을 따라가 볼까요? 아이들이 찾은 단어들이입니다.

무지개, 자연, 꿈, 잠, 엄마, 딸, 여자, 새, 음식, 추수, 가을, die, 눈물, 사랑, 감자, 미나리, 죽음, 마음, 돌, 물, 비, 아름다움, 밀, 수확, 집, 자유, 반가움, 치마, 중세시대, 자매, 소녀, 소풍, 불쌍함, 아기꽃, 황금색, 악기, 황금나무들

아이들이 만든 질문을 한 번 보세요. 질문 없이 보았을 때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질문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머리와 마음은 바빠질 것입니다.

무슨 상황일까?

어느 계절일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로 보이는 여인이 눈을 왜 감고 있을까?

비가 왔을까?

왜 서로 안겨 있을까?

현실일까?

뒤에 보이는 것은 마을일까?

딸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왜 좋은 곳에 가지 않고 풀밭에 앉아 있을까?

무지개가 왜 하나만 연할까?

왜 빨간 망토에 나비가 붙어 있을까?

왜 언니만 눈이 감겨 있을까?

어떻게 해서 눈이 다쳤을까?

왜 동생만 옷이 더 닳았을까?

엄마한테 쫓겨 났을까?

새는 왜 많을까?

무지개가 왜 두 개일까?

왜 나무가 황금색일까?

그림을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 지금은 가을이고 쌍무지개가 있어. 그리고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고, 새들이 벼를 쪼아 먹고 있어. 하늘은 푸르고 고요해.
- 이 풍경은 황금들판으로 물들어진 계절이고, 황금빛 무지개가 펼쳐진 세계이다.
- 엄마와 딸이 소풍을 왔다가 잠이 와서 잠깐 들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자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야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든 제목을 한번 보세요.

친구야! 지금은, 황금빛 마음, 조용한 마을, 가을과 소녀, 언니와 소녀가 있는 풀밭,



마지막으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가지고 한 수업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아이들은 위의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밝은 별, 별이 빛나는 밤, 반짝 반짝 달빛여행, 바다 속 안 어두운 마법세계, 밤의 세상, 내 마음처럼 어두운 마을, 달과 별, 달빛과 어둠

아이들의 질문이 정말 예뻐서 옮겨봅니다.

왜 밤하늘이 물결 모양일까?

이 그림은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까?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곳은 어디일까?

이곳은 시간이 흐를까?

사람은 왜 보이지 않을까?

검은색 물체는 무엇일까?

물결 모양은 왜 있을까?

달만 왜 이렇게 선명할까?

산같이 생긴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달이 초승달일까?

소용돌이니 바람이니?

화가가 가난했나요 부자였나요?

왜 낮 말고 밤을 표현했나요?

왜 어두움을 표현하고 싶었나요?

이 그림을 보고 기분이 어떤가요?

이 화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나요?

나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엄마라면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질문으로 짝과 서로 이야기 한 것을 정리해서 옮겨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반고흐는 왜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렸을까?  
 그 그림이 평화로워 보여서 이 풍경이 자신 같아서  
 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을까? 죽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것이니까  
 왜 곡선으로 그렸을까? 직선보다 곡선이 흐릿한 느낌이다.  
 별과 달이 왜 폭발할까? 지구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회색은 무엇일까? 인내가 잘못되어서

별과 달이 폭발을 하고, 직선보다 곡선이 흐릿한 느낌이라는 아이들의 표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수업은 3~4학년들과의 수업내용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순간에는 아이들의 뇌도 기쁨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합니다.

### 03. 비교하기로 감상하기

#### <비교하기 1. 고흐>

비교하기는 아이들에게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좋은 수업입니다. 찬/반 토론의 효과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근거를 찾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듯이 비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칠 것도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를 하게 하는 좋은 공부법입니다.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같은 작품을 여러 방법으로 새롭게 표현하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그리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가지고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두 개는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고 마지막 작품은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굳이 미술과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관찰하게 하면 다양한 생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덕분에 이런 감상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연령으로 돌아가 그 아이들의 눈으로 관찰하고 느끼는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치유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술작품으로 자기의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 교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역시 세 개를 비교하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끌어내 보세요. 아이들의 질문을 전체 토론으로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흐는 그 곳의 자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이때 비교하기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이 많이 만들면 교사는 기준을 찾도록 질문을 해 주면 됩니다. 시간, 장소, 시선, 색, 등장인물, 표현기법 등 다양하게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비교기준을 찾아서 그에 따라 비교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부터 아이들은 쉽게 비교기준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등의 여러 미술 사조를 비교하도록 하면 아이들은 다양하게 미술작품에 접근하면서 역사와 더불어 안목을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인상파, 표현주의, 사실주의, 사진이 발명되면서 부터는 사실주의를 벗어난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림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기계를 능가하는 인간의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단순 정보를 표현하는 알파고에서 상상력을 마음껏 그림으로 그려낸 인간의 능력에 무한 감동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비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 그림과 조각, 그림과 판화, 동양화와 서양화, 서예와 그림, 서예와 서양화, 아이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비교, 만화와 영화의 비교, 건축물과 그림의 비교, 고대의 건축물과 현대의 건축물비교, 인간의 건축물과 조류의 건축물, 곤충들의 건축물 등을 미술로 접근하는 비교는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더불어 무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감상은 융합교육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연결하면 새로운 융합으로 가게 됩니다.

## <비교하기 2. 동양화와 서양화>

서양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동양화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정서상으로는 우리와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럴 때 무조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동양화 즉 우리 그림에 익숙해지도록 그림을 가지고 질문으로 먼저 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림 중 아이들에게 친숙한 그림들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색인 먹으로 그린 그림들이 생각 외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림들을 한 번 볼까요?



김홍도의 작품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를 택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교사가 쉽게 작품 속으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름이나, 서당 등 잘 알려진 것들도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은 쉽게 아이들을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비교를 한 번 해볼까요?  
겸재 정선의 그림과 세잔의 그림을 비교해보는 질문을 해 봅니다.



정선- 금강전도	세잔 - 생빅투와르산
1. 무엇을 그린 걸까? 2. 어디서 바라보고 그린 걸까? 3. 비행기에서 봤을까? 4. 한가지색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5. 상상화인가? 6. 누가 그린 것일까? 7. 신이 그린 것일까? 8. 저 많은 산이 한꺼번에 보였을까? 9. 어느 시대 그림일까? 10. 왜 색깔을 쓰지 않았을까? 11. 당시 사람들은 저런 그림들을 좋아했을까? 12. 요즈음 사람들도 저런 그림을 좋아할까? 13. 어린 아이들도 그림을 그렸을까?	1. 누가 그린 것일까? 2. 자기가 사는 동네의 산일까? 3. 비슷하게 같은 색깔을 많이 쓴 이유는? 4. 아침, 저녁 중 언제일까? 5. 계절은 언제일까? 6. 몇 사람이나 살까? 7.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저기 마을에 살까? 8. 산다면 어느 집일까? 9. 그림을 그린 시대는 언제일까? 10. 어느 나라를 그린 것일까? 11. 저 화가의 다른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만 보아도 아이들의 관찰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린 시점을 알아보면 ‘겸재 정선의 그림은 비행기에서 보고 그린 걸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을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나오지요. ‘신이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그림을 보는 아이의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에 비해 세잔의 그림은 구체적이고 지명을 알고 싶어 하며, 마치 ‘살던 동네를 그대로 옮겨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한 것보다 한 가지 색으로 저렇게 거대한 산 전체를 그릴 수 있다는 표현력에 아이들은 놀랍니다. ‘어떤 그림이 더 낫다, 아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보지 않으면 다름과 특별함을 느낄 수가 없겠지요. 먹의 매력에 빠져들고, 조선시대의 화가들의 스케일에 놀라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마음의 눈으로 저것을 볼 수 있었고 그걸 그려내었다는 압도적인 능력, 함께 공부하는 교사들도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비교하는 감상의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주변의 흔한 풍경이라도 화가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세잔의 그림도 새롭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겸재의 그림과 19세기 세잔의 그림을 비교하는 수업은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교사는 17세기 조선의 그림, 19세기 화풍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를 하면 될 것입니다.